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서해크루즈
석도훼리 전북 대리점
실장 이진순
군산항 ⟷ 중국위해 석도항
주 3회 운행
H 010.8375.8426
E long2030@hanmail.net
F 063.212.9888

2026년 8월 4일(화) 제 3375호

정보통신 유지관리 '행정 사각지대' 방치

지자체별 관리 중복 확인 난항
기술자 5곳 제한 사실상 무력
덤핑 경쟁·유지관리 부실 우려
전국 통합관리체계 구축 시급

(2)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가 행정구역별로 운영되면서 기술자 중복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자 1인당 관리 건축물을 최대 5곳으로 제한한 제도의 취지가 행정구역을 넘는 순간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자체 간 선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나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선임된 기술자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할 경우 한 기술자가 전주시에서 이미 5개 건축물의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뒤 익산시나 완주군 등 다른 지자체에서 다시 5개 건축물의 유지관리자로 선임되는 것도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도상 기술자 1인당 관리 건축물은 5곳으로 제한돼 있지만 행정구역이 달라질 경우 이를 검증할 장치가 미흡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중복 선임이 실제 유지관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유지관리는 CCTV와 방송설비, 네트워크, 출입통제시스템 등 각종 정보통신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다.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 지역을 오가며 과도한 수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작용은 시장 질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업체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과도하게 관리 물량을 확보하면서 유지관리 비용을 낮추는 이른바 '덤핑 수주'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관리 물량이 줄어들고, 결국 경영난과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통합 선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기술자 선임 현황을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5곳을 초과해 선임되는 사례는 자동으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 유지관리 제도가 국민의 정보보안과 통신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인 만큼 행정구역별 칸막이 행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관계부처는 중복 선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전국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준호 기자

도정 간부회의 생중계 3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이원택 지사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가 처음으로 시범 운영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道 농지 106만필지 전수조사 53만필지 현장점검 착수

드론 활용 이용실태 확인
농지법 위반 여부 점검
관리체계 강화 기초자료 구축

전국적으로 강도높은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가 농지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월부터 도내 농지 전수조사 현장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위성·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1단계 기본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도내 농지 약 106만 필지(약 15만4천ha)이다. 도는 1단계 기본조사를 통해 이 가운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약 53만 필지(약 7만5천ha)를 선별했다.

기본조사에서는 농지 이용 현황과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적합 의심 농지 약 2만ha가 확인됐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와 외국인 소유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 중점조사 대상 약 5만5천ha를 포함해 총 7만5천ha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시설물 설치 현황 등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지형적 여건으로 확인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농지 이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 현장 사정을 감안, 대안 조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심층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조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 햇빛소득마을 조성 '속도'…1차 공모 17곳 선정

발전수익 마을복지 활용
2030년까지 500곳 조성 목표

전북도가 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도에 따름면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도내 8개 시군 17개 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 복지와 마을공동사업에 활용하는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주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돼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번 1차 공모에는 도내 10개 시군 24개 마을이 신청한 가운데 조합 구성과 사업부지 확보, 자금조달 계획,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17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17개 마을 가운데 완주 어두·왜목마을은 즉시 사업을 추진하며, 나머지 16개 마을은 부지 확보와 전력계통 보완 등 조건을 충족한 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건부 선정 마을은 6개월 이내 보완사항을 완료하면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전력계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을 대상으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는 등 후속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시군과 농촌마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차 공모에는 12개 시군에서 74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평가 결과는 오는 9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을공동체 구성부터 사업부지 발굴, 전력계통 연계 검토, 사업계획 수립까지 단계별 지원을 이어가며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선화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2030년 500개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라선 KTX, 9월부터 운행 확대·시간단축

주중 5회·주말 9회 증편
경유없이 오송~익산 직행 신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전라선 KTX 운행확대 요구와 관련, 전북도민들의 숙원이었던 철도 이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KTX와 SRT가 'KTX'로 통합 운행되는 가운데, 전라선 고속열차 운행 횟수는 주중 40회에서 45회로, 주말 45회에서 54회로 확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행횟수가 늘어나는 주중 5회, 주말 9회는 모두 상·하행 운행 횟수를 합산한 수치다.

특히 새로 투입되는 열차는 서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오송~익산 간 고속선으로 운행된다. 서대전역 경유에 따른 소요시간 증가를 최소화함으로써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 이용객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전북도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철도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마련됐다"며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설 열차가 오송~익산 고속선으로 운행돼 이동시간까지 단축되는 만큼, 전북도민들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2면에서 계속>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전북 귀농창업자금 417억 확보…전국 최대 규모

207억 이어 210억 추가 확보
전국 배정액 16% 차지
농업창업 최대 3억 융자
주택 최대 7500만원 지원

전북도는 올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으로 총 417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상반기 207억원에 이어 하반기 210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국 배정액 2,606억원의 16%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규모다.

도는 상반기 95명에게 207억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 확보한 210억원은 각 시·군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뒤 8월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창업과 주거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농업창업은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등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은 최대 7,5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도는 자금 지원과 함께 귀농귀촌 서울사무소와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교육과 상담,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착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귀농인의 집과 전북형 보금자리 등 임시거주시설을 확대해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매년 약 2만 명의 귀농·귀촌인이 전북으로 유입되고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에 대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도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 첫주 순회경선 정청래 선두…이성윤 6위

충청권에선 김민석 승리
부울경서 정청래 역전 선두
전북 경선 '최대 분수령'
이성윤 최고위원 당선권 밖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첫주 당대표 경선 중간 집계 결과, 정청래 후보가 전날 1위를 차지했던 김민석 후보를 밀어내면서 선두로 올랐다.

경선 두 번째 날인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전날 충청권에서 2위로 밀렸던 정 후보가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두지역 합산에서도 1위로 등극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는 46.64%, 김민석 후보 43.84%, 송영길 후보 9.5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부울경 경선 결과와 전날 실시한 충청권 투표 결과를 합사하면 정 후보가 45.51%로 선두, 김 후보는 44.52%로 2위, 송영길 후보는 9.97%로 3위였다.

경선 초반에 정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다음 경선인 오는 8일(제주·인천)과 9일(강원대구경북)경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당대표의 당락 여부는 오는 15일(전북·전남광주)과 16일(경기·서울) 경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대표 선출 규정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그대로 1~2순위자에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최종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실시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전북의 이성윤 후보가 아쉽게도 당선권 밖인 6위를 기록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대표 후보

물론 이 의원의 절대적 지지층이 전북에 있다는 점에서 오는 15일 전북 지역 순회 경선 결과에 따라 최고위원 당선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중간 집계 결과는 최민희(22.87%), 박선원(16.04%), 한민수(14.87%), 서미화(13.85%), 김용(12.25%) 후보가 당선권인 5위 내에 들었고, 이어 이성윤(11.87%), 임미애(5.34%), 김영호(2.91%) 후보가 6~8위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1일 실시된 충청권 결선 결과는 김민석 후보 45.05%(3만632표), 정청래 후보 44.61%(3만329표), 송영길 후보 10.34%(7027표)였다.

/서울=김영묵기자

전북도, 민선9기 1호 결재 '간부회의 생중계' 첫발

도정 간부회의 생중계 시범운영
청년정책 실효성 강화 주문
폭염·돌봄 대응체계 점검

전북도가 3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민선 9기 1호 결재 사안인 '간부회의 생중계'를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며 8월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생중계는 도정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과 함께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이 지사는 회의를 시작하며 "이번 회의는 도정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고민을 도민과 온전히 나누는 자리"라며 도민이 참여하는 소통 행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현안 점검에서 이 지사는 먼저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정책은 철저히 청년들의 실수요를 바탕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취업과 창업 두 축으로 나눠 취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정책과 창업 이후 정착·성장을 돕는 지원책을 세분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시행 후에는 반드시 효과 분석을 거쳐 정밀하게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도민 안전과 보건·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당부도 이어졌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이 지사는 "밭일을 나가는 새벽과 한낮 등 고령층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시간대별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어느 시간대의 대응이 실질적인 인명 피해 예방에 효과적인지 정밀하게 분석하라"고 밝혔다. 폭염과

간부회의 생중계 시범 운영 송출 화면 <사진=전북도>

화재 등 재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요양보호사 병원 동행, 응급안전 서비스, 긴급 돌봄 등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지역 문화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상도 논의됐다. 문화특화기업 육성에 대해 이 지사는 "그동안의 콘텐츠 기업 중심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예술인까지 아우르는 육성 계획의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대상을 확정하고, 도내 콘텐츠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야간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하고, 이를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공업용수, 발전소, 폐수처리 등 전북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하반기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만큼,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모든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온전히 도민의 안전과 성장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윤준병, 기내식·선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원산지표시 의무화법 발의
먹거리 정보 사각지대 해소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기내식 선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내식과 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선식도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 표시 의무는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항공 여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2025년 국내·국제선 이용객은 약 9,464만 명에 달하는 등 기내식 이용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선박 여객 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기내식·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해 소비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명확히 적용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1면에서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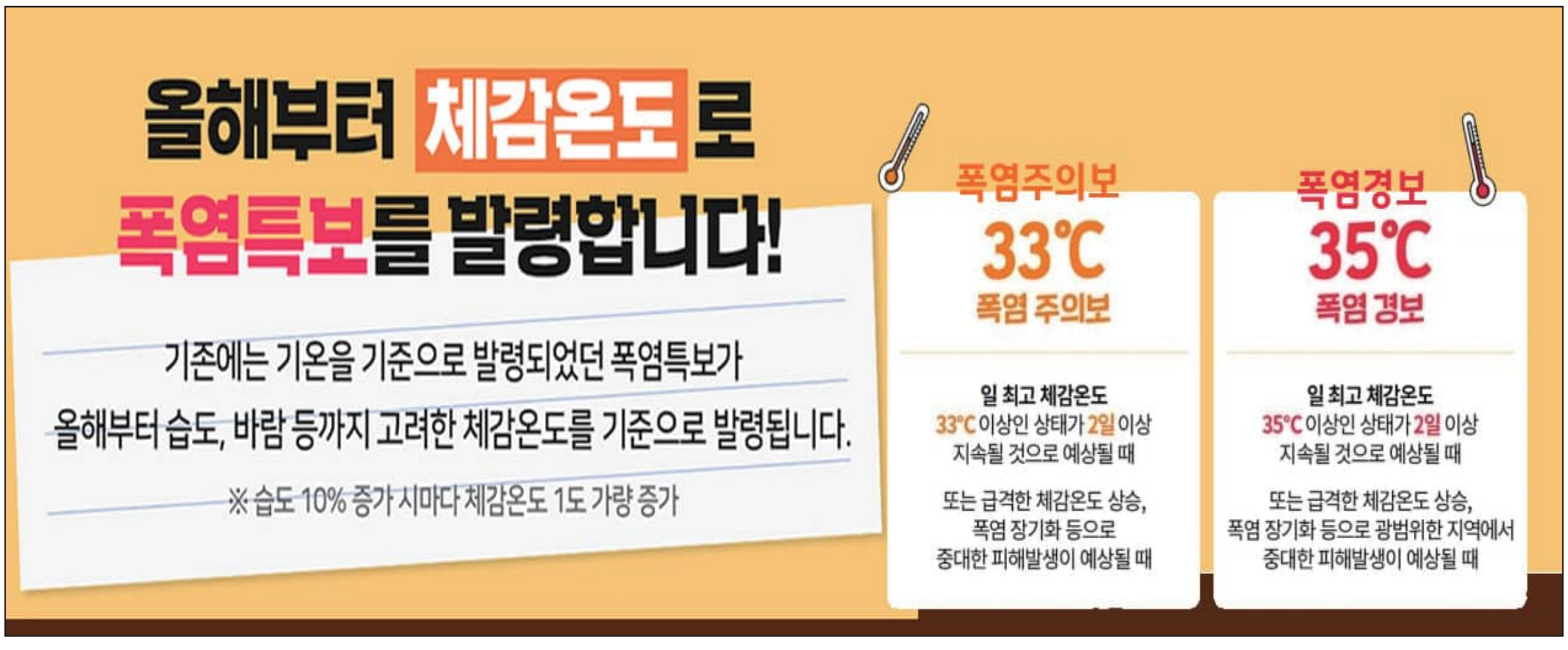
이성윤 의원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라선 고속열차의 만성적인 좌석 부족과 높은 이용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운행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실제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을 상대로 전라선 KTX의 심각한 예약난을 지적하며 "서울에서 전주 KTX를 직접 예약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이용률이 110%를 웃도는 현실을 언급하며 조속한 운행확대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전주역 고속철도 증편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등에서도 전라선 고속열차 운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의원은 "전라선은 전국에서도 고속철도 이용 수요가 매우 높은 노선이지만 공급 부족으로 전북도민들이 명절과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운행확대가 전북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전주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전주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이 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전주시>

전주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이 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10개 부서에 18명이 배치돼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고 맞춤형 상담과 납부 독려를 실시할 예정이다.

발대식에 따라 단장 윤동욱 전주 부시장, 관계 공무원, 체납관리단원 등 40여명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징수활동에 있어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상담과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체납 독촉이 아닌 체납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조직"이라며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는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는 등 체납 유형에 맞는 대응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 덕진구 담배꽁초 부주의 화재 발생

가연물 주변 흡연 금지
불씨 완전 제거 강조

최근 전주시 덕진구 소재 담배꽁초 화재가 발생되며 생활 속 화재예방 주위가 따르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에 지난달 27일 16시 40분경 전주덕진구 소재 한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 후 추출동한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 발생 화재"로 확인됐다.

화재 피해로는 세탁실에 적재돼 있던 종이박스와 스티로폼 상자 등 주변 가연물 등이다.

다행히 신고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 환경과 건조한 조건 속에 종이택배박스, 스티로폼 등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은 담뱃불과 같은 작은 화원에도 쉽게 착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흡연 후 불씨를 완전히 끈 뒤 지정된 장소에 버릴 것 △종이박스, 스티로폼 등 가연물 주변 흡연 금지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을 것 △공동주택 공용공간과 계단실 등에서는 금연구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주덕진소방서는 생활 속 화재예방수칙 홍보와 안전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동완산동 새뜰마을 참여단체 모집

총 2개 단체 선정 예정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26 동완산동 새뜰마을 거점시설 시범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대상은 전주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및 청년조직·단체 등 총 2개 단체다.

선정된 단체는 동완산동 새뜰마을 거점시설 4층 카페 운영과 3층 공간을 활용한 자율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게 된다.

여기에 '시범 운영비', '홍보·마케팅비가 지원', '시범 운영 기간 거점시설 공간'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나아가 카페 운영에 필요한 최소 장비를 지원해 참여단체가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거점시설활성화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이후 서류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도·시민 화재안전 최우선 '전기사용 주의' 당부

전기화재 예방수칙 강조
가연물 방치 큰 화재 이어져

진형민 전북소방본장이 기후변화 전북도 여름폭염에 대해 "최근 전기화제 증가 추세"에서 오는 도·시민 화재안전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에 전북소방은 도·시민 여름철 전기사용 전기화재 예방을 당부하며 다양한 화재 관련 소식을 알렸다.

전북소방본부 여름철 전기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23년 3202건, '24년 3284건 ↑, '25년 3317건 ↑ 등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전기화재 추세변화는 특보 전 평균 하루 84건 화재 발생에서 발효 후 96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진형민 본부장은 여름철 전기화재 발생 이유로 "△과열 △콘센트 과중 사용 △전선 피복 손상 △플러그·콘센트 먼지" 등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연물 △환기 등의 작은 부주의를 직접적인 화재발생 영향"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화재 예방을 위해 "△냉방기기 전선 및 플러그 상태 확인 △미사용 전기제품 전원 차단 △멀티탭 허용전력 준수 △주변 가연물 제거 △노후 전기제품 또는 콘센트 교체 등을 우선순위에 뒀다.

앞서 전북소방은 폭염 관련 전기 화재 발생 위험 대비 한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화재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태세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해 지난달 28일 14시 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 발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전북소방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17,235개소에 전기화재 예방수칙을 전파하며 중점관리대상 422개소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노후주택과 아파트 12,639세대 소방안전물품 보급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위험물시설', '외국인 숙소' 등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에도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고위험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등급 C·D등급인 돈사와 계사 190개소를 상대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진행하며 77개소에는 전기화재 예방안전시설을 지원했다.

여기에 전북소방은 도·시민 화재 안전을 위한 도내 주요 축제 또는 행사장 14개소에 전문소방력을 전진 배치할 방침이다.

진 본부장은 도·시민 화재 우선 안전을 위해 소방차량 590대 냉각장치를 하루 두 차례씩 점검하며 "화재안전 전북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립교향악단 '청년동행프로젝트Ⅲ' 공연

전주시립교향악단은 'Summer 뮤직 어드벤처' 공연 예정을 3일 밝혔다.

'Summer 뮤직 어드벤처' 공연은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덕진예술회관에서 여름밤 어린이음악회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청년동행프로젝트Ⅲ'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립교향악단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이 클래식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 해설과 함께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으로 구성해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연은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제18변주 안단테 칸타빌레'를 비롯해 생상 '죽음의 무도', '동물의 사육제' 등 클래식 명곡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주시는 친숙한 영상 콘텐츠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음악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순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연은 지역 청년 예술가들에게 무대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이 클래식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5000원이며 입장권은 나루컬쳐 누리집을 통하면 된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여름방학 돌봄사각지대 아동 및 양육자 위한 맞춤형 요리체험 프로그램 '드림쿠킹클래스'를 추진한다 <사진=전주시>

전주시 '드림쿠킹클래스' 운영

건강한 식습관 형성
가족의 행복한 성장 지원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여름방학 돌봄사각지대 아동 및 양육자 위한 맞춤형 요리체험 프로그램 '드림쿠킹클래스'를 추진한다.

드림쿠킹클래스는 아동들이 다양한 식재료를 직접 다루며 오감을 발달시키고 성취감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및 양육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3일부터 7일까지 총 5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장소는 만성동에 위치한 키키봄에서 운영된다.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으로는 △도넛과 소시지빵 만들기(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 아동) △피자·떡볶이와 휘낭시에 만들기(취학아동) △계절과일 케이크 만들기(양육자) 시간으로 운영된다.

박은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요리조리 푸드 챌린지' 운영

함께 배우는 협력의 즐거움
'말 한 스푼, 존중 한 조각!'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요리조리 푸드 챌린지'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요리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동 목표 과정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아동들은 서로에게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기로 약속한 후, 의견을 나누어 팀명을 정하고 요리 활동을 위한 역할을 분담했다.

이어 롤샌드위치와 과일꼬치를 만들며 응원과 칭찬의 말을 주고받고, 서로 협력해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했다.

프로그램은 지난달 31일 소망지역아동센터와 3일 평화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존중과 배려의 언어를 실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심기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배려의 언어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체험형 성교육과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심평원 11차 평가에 '1등급'

골든타임 내 최적 진료 역량 입증

전북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1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는 '사망률', '장애 발생률 감소', '요양기관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 11차 평가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급성기뇌졸중을 주상병(I60~I63)으로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에서 전북대병원은 전체평균(85.17점)을 크게 상회하는 종합점수 100점 만점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지표는 △인력 및 시설(Stroke Unit) 구성 여부 A등급 △병원도착 60분 이내 정맥내혈전용해술 실시율 100% △병원도착 120분 이내 동맥내혈전제거술 실시율 100% △조기재활 평가율 100% △기능평가 실시율 100% 등 핵심 지표에서 만점을 달성했다.

특히 진료 결과 지표인 입원 중 폐렴 발생률(출혈성/허혈성)에서는 0%를 기록하며 체계적인 치료와 철저한 환자 안전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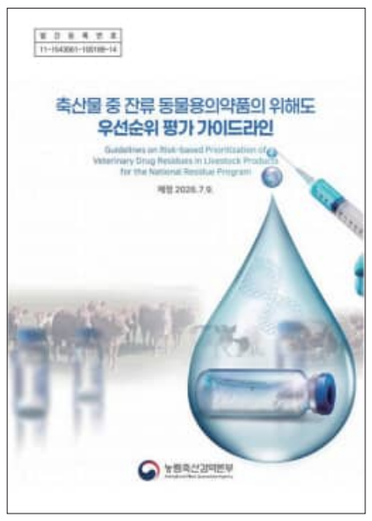
양종철 병원장은 "앞으로도 권역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책임지는 중추의료기관으로서 도민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골든타임 내에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8월 4일 화요일

검역본부 '축산물 잔류 동물의약품 위해도 지침' 발간

축종·품목별 약 240종 대상 2027년부터 적용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 차원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위한 생산·유통 과정 등 동물용의약품 유해 잔류물질 관리·검사가 마련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가 '축산물 잔류 동물용의약품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발간했다.

이에 따라 농장(가축)과 도축장 축산물 잔류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위해도' 체계적 검사가 이뤄진다.

검역본부는 농장과 도축장을 통해 생산되는 축산물을 담당하며 매년 시도동물위생시험소가 수행할 잔류검사 대상 물질, 축종 및 검사 물량 등을 정하고 있다.

검역본부 축산물 잔류검사는 축종·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별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가 잔류검사 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할 물질의 범위가 넓어졌다.

따라서 물질별 위해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의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연평균 약 10만건)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 등을 분석했다.

또 미국·유럽연합(EU)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잔류물질 관리 원칙, 세계보건기구(WHO)의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분류 등 주요국 사례와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검사 대상 동물용의약품과 검사 물량을 정하는 절차를 5단계로 체계화했다.

5단계는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최근 3년간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 섭취허용량,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종합 우선순위 산출 △통계적 필요량·가축 생산 규모·최소 기준을 고려한 시료량 산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조정·확정 등이다.

지침을 통해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위해도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 물질과 검사 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잔류검사 효율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을 반영한 잔류검사 체계를 마련해 향후 국내 축산물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여 수출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정승교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새로 마련한 지침은 국가 잔류검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적용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케이(K)-축산물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3일 전북농협·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는 부안농협과 함께 '농심천심, 여심이 함께! 양파 한 알의 기적, 건강 두 배의 시작'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농협>

농심천심 양파소비촉진 '女心' 두 팔 걷어

전북농가주부모임 '시름에 잠긴 농가' 적극 지원

농가주부모임 여성 리더들이 지역민 살피기에 연신 구슬땀을 내비치며 농가 돕기에 한창이다.

3일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회장 김미자)는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과 함께 '농심천심(農心天心), 여심(女心)이 함께! 양파 한 알의 기적, 건강 두 배의 시작'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양파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에 따른 시름에 잠긴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양파 재배 농가 고통 분담 위한 전방위적 소비 붐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 적극적 후원으로 기획됐다.

행사에서 농가주부모임 여성 리더·직원들은 관내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 2천여명에게 총 8톤 양파를 직접 전달하며 폭염 속 지역어르신 건강까지 살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농가 및 지역민 위한 행사는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농심천심' 실천을 현장에서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실천에는 △어르신 마음건강 △자살예방 안내 등 복합 돌봄케어를 진행해 이날 주위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현장에는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와 농가주부모임부안농협분회 회원 및 농협관계자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김미자회장은 "농민들의 정성으로 수확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농촌의 소외된 어르신들이 없도록 농가주부모임은 앞으로도 농심천심 운동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돼지 장기 이식 거부반응 낮출 '형질전환 세포주' 구축

농진청,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사람에게 이식하는 돼지 장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면역거부반응과 혈전·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한 형질전환 돼지 생산용 세포주를 구축하고, 국내 특허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을 마쳤다.

돼지 장기는 크기와 기능이 사람 장기와 비슷하지만, 사람에게 이식하면 면역체계가 돼지 장기를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한다.

이 과정에서 면역거부반응과 혈전, 염증 등이 발생해 이식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를 줄이기 위해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돼지 유전자의 기능을 없애고 사람 유래 면역 조절 유전자를 도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이번에 구축한 형질전환 세포주는 돼지의 B4GALNT2 유전자 기능을 없애는 동시에 그 자리에 사람 유래 면역 조절 유전자 2종, CD39와 CD73을 삽입한 것이다.

B4GALNT2는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할 때 면역거부반응을 유발하는 유전자 가운데 하나다.

연구진은 CD39와 CD73을 목표 유전자 자리(좌위)에 정밀하게 삽입해 혈전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도록 설계했다.

연구진은 유전자가 정확히 삽입됐는지 확인한 뒤 단백질 발현과 기능도 검증했다. 세포별 단백질 발현을 측정하는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 결과, CD39 단백질은 94.8%, CD73 단백질은 99.0%의 세포에서 확인됐다.

단백질 발현량은 대조군보다 각각 최대 25배, 73배 높아 두 유전자가 대부분의 세포에서 안정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 분석에서도 염증반응을 촉진하는 세포 밖 ATP(아데노신삼인산)이 빠르게 감소했다. 반면, 면역·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아데노신(adenosine)은 대조군보다 최대 26배 늘었다.

<사진=농촌진흥청>

즉, 삽입한 CD39와 CD73이 단순히 발현되는 걸 넘어 염증 관련 신호를 실제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본 기술의 원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국내 특허 출원에 이어 올해 5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제 특허 출원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해당 세포주를 활용한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진은 이 세포주를 활용해 생산한 형질전환 돼지에서 B4GALNT2 유전자 기능 상실과 CD39·CD73 유전자의 발현 여부를 개체 수준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또 면역거부반응과 혈전·염증 조절 기능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종 이식용 돼지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 검증을 마친 돼지는 다음 이식 연구에 활용된다.

/정소민 기자

우체국 직원 '고객 재산 5천만원' 보호

익산삼기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사진=전북지방우정청>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구본준)은 익산삼기우체국 직원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최○○씨(80대,여)의 소중한 자산 5천만원을 보호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최○○씨는 익산삼기우체국을 방문해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해 5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담당 직원이 현금 인출 사유를 묻자 고객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고, 익산삼기우체국장과 직원들이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인출사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현금 지급만을 고집하자 직원들은 금융사기를 의심하게됐다.

고객이 휴대전화로 통화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들이 어르신을 모셔와 전화를 대신 받았고, 상대방이 곧바로 전화를 끊고 다시 연결되지 않자 즉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함께 확인한 결과, 형사를 사칭한 전화로"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고객에게 이를 안내하고 안심시킨 뒤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익산경찰서에서는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한 익산삼기우체국장과 직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한 익산삼기우체국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전 직원에게 당부하는 한편, 지속적인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 여름철 전기화재 위험 '주의' 당부

기본적인 전기 안전 사용 '강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여름철 전기화재 안전을 위해 전기안전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이유로는 '전기재해통계분석'에 의한 여름철 전기화재 발생 통계 때문이다.

관련해 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4년 전기화재 발생 비율 8634건 가운데 31.1%(2688건)가 여름철(6~8월)에 집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여름철 집중 화재 발생 원인으로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등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냉방기기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제품을 멀티탭에 동시에 연결할 경우 과열로 인해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여름철 전기화재는 작은 부주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휴가를 떠나기 전 전기제품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사장은 "휴가철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 전원 차단과 냉방기기 안전 콘센트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강조했다.

공사는 국민 안전 휴가 위한 여름철 전기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에어컨 단독·전용 콘센트 사용하기 △에어컨 실외기 먼지 청소 및 환기 확인하기 △제습기와 인덕션 등 소비전력이 높은 기기 모둠전원꽂이(멀티탭)에 연결하지 않기 △휴가 가기 전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 전원 차단하기 △야외에서 전선(릴선)은 모두 풀어서 사용하기 등이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건기식 GMP 전문인력 양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습 중심 교육 운영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3일 건강기능식품 GMP 2기 교육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건강기능식품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취업자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GMP 2기 교육과정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이와 함께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즉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석기기(HPLC, GC 등) 실습 교육과 함께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운영된 1기 과정에서는 총 12명의 교육생 중 4명의 교육생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 교육생이 참여한 성과발표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교육의 우수성과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기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바이오·식품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1기 교육과정을 통해 확인된 취업 성과와 교육 효과를 바탕으로 2기 과정에서는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바이오진흥원>

/정소민 기자

㈜애니스마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도내 소재 ㈜애니스마트의 제품이 2026년 제2회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신규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애니스마트 'EZprime 통합SI 관제 솔루션 v1.0'은 CCTV 등 다양한 장치의 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해 관제 및 비상 대응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관제 플랫폼이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단순한 제품 인증을 넘어, 검증된 기술과 공공수요를 효과적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유망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전북현대 'JB파트너데이' 성료

전북은행 임직원 500여명 응원단으로 의미 더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 펼쳐진 전북현대모터스FC 홈경기에서 'JB파트너데이'를 성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축구팬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FC서울과 치러진 이 날 경기에서 진행된 이번 'JB파트너데이'는 '도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따뜻한 금융'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이 날 'JB파트너 데이'는 경기에 앞서 공식 파트너십 협약식, 박춘원 은행장과 정원호 노조위원장의 선수단 격려 및 시축, 전북은행 임직원들의 자녀 22명이 에스코트 키즈로 참여했다.

또한 500여명 임직원들이 응원단으로 함께 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을 대상으로 전북은행 쏙버스를 통해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와 홍보를 진행하며 경기장을 찾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춘원 은행장은 "전북은행은 지역연고 구단인 전북현대FC와 파트너십를 맺고 지역상생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북은행과 전북현대를 향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천호성 교육감 "지자체와 연계해 위기 돌파"

주간정책회의서 강조
오는 13일 시장군수協 참석해 지역소멸대응 특위 제안 예정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위기 극복을 주문했다.

전북교육청은 천 교육감이 3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학부모의 참여가 있어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며 지자체 연계 의제 발굴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천 교육감은 오는 13일에 열리는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 직접 참석해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소멸 문제 대응과 교육을 통한 지역 발전 선도를 위해 자치단체와의 연대를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천 교육감은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예산부서와 지원청 간 소통을 주문했으며, 2학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도전과 창업 프로젝트' 관련 예산 배분을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3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위기 극복을 주문했다. <사진=전북교육청>

전북대, 국방사업관리사 전문과정 수료

방산기업 재직자 45명 수료

전북대학교가 지역 최초로 운영한 방위산업 재직자 대상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증 취득 재직자 전문과정'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대는 지난 2일 캠틱종합기술원에서 수료식을 열고, 45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과정은 도내 방산기업 재직자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와 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주말 집중과정으로 운영된 이번 교육은 국방기획관리제도, 계약관리, 시험평가 등 총 28개 과목(71시간)으로 구성됐다.

전북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예비인력 중심이던 교육 대상을 현장 재직자까지 확대했다.

이번 과정은 전북이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선정된 이후 처음 운영된 재직자 전문교육이다.

강은호 첨단방산학과장은 "수료생들이 기업의 방위사업 기획과 조달 역량을 높이는 핵심 인력으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의 전설, 클래식 선율로 되살아난다

내달 17일 기획연주회 개최
'군산의 사계절' 풀어내

군산시립교향악단이 내달 17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84회 기획연주회 '군산의 전설'을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이명근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군산이 품고 있는 오랜 설화와 역사, 그리고 땅과 바다가 빚어낸 아름다운 사계절을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풀어낸다. 특히 지역의 문화자원을 클래식 음악 콘텐츠로 재해석해 지속 가능한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고자 기획된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공연 전반부에서는 작곡가 이원정의 교향시 '군산의 전설 사계'가 연주된다. 이원정 작곡가는 Schiedmayer&Sohne 주최 국제작곡콩쿠르에서 최연소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 총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군산의 전설 사계'는 군산의 대표적인 명소와 계절의 변화를 음악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1악장 '은파의 봄' △2악장 '진포의 여름' △3악장 '오성산의 가을' △4악장 '고군산군도의 겨울'로 구성된다. 군산의 역사와 자연이 지닌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오케스트라의 다채로운 음향으로 표현해 관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가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김연아는 주하이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를 비롯해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체코 등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과 KBS '더 시즌즈-박보검의 칸타빌레' 등 방송을 통해서도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김연아는 이날 안토니오 비발디의 대표작 '사계' 전곡을 연주한다. 봄·여름·가을·겨울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낸 비발디의 음악과 김연아의 섬세한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군산시립교향악단의 풍성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어우러져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예술의전당 박현자 과장은 "이번 공연은 군산이 가진 역사적 설화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음악으로 기록하고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무대"라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와의 협연을 통해 군산 시민은 물론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울림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전석 5,000원이다.

티켓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예매 관련 문의는 군산시립교향악단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주부설초·회현초, IB PYP 월드스쿨 인증 획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주교대 전주부설초등학교와 회현초등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IB) 초등학교 프로그램(PYP)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IB PYP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배움을 만들어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부 상설 연구학교인 전주부설초는 전문적학습공동체와 전주교대 IBEC 과정을 연계해 탐구 중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를 실천해 왔다.

전북미래학교인 회현초는 학교자율시간 과목 '부부리마을'과 마을교육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연계 탐구 활동을 운영해 왔다.

최상진 전주부설초 교장은 "학생의 질문과 탐구가 살아있는 교실을 만들고 경험을 나누겠다"고 말했고, 심지영 회현초 교장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결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부안군 '박물관 음악회' 8일 공연

부안군은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상설공연 '박물관 음악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부안청자박물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사진=부안군>

이번 공연은 청자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에서는 비보이(B-boy) 퍼포먼스를 비롯해 통기타 공연, 풍선아트, 탭댄스, 전통무용 등 폭넓은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비보이(B-boy) 퍼포먼스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감미로운 통기타 공연 이외에 전통무용, 탭댄스, 풍선아트 등 장르별 특색을 살린 공연이 연이어 이어지며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라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공감하며 문화예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맛보자고 푸드 콘테스트' 투표 열풍

지평선 축제 대표맛집 선정

김제시가 다가오는 지평선축제를 빛낼 대표 맛집 선정을 위한 프로젝트 '맛보자고! 푸드 콘테스트' 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번 행사는 김제 지평선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축제 대표 맛집 9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투표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0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시 홈페이지와 sns,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김제 DMO) sns에 게재돼 있는 '맛보자고 푸드 콘테스트' QR코드나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해 1인당 5개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투표를 완료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초반부터 투표 열기가 뜨겁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순위가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흥미로운 상황"이라며, "잠깐 시간을 내어 맛있고 풍성한 먹거리가 가득한 축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김제지평선축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전북 김제시 일원 벽골제 중심으로 개최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고인돌박물관 '조각으로 보는 유물' 전시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조각으로 보는 유물'을 주제로 8월 이달의 유물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인돌박물관 2층 실감영상관에서 열리는 전시는 분청사기 편, 막새기와 등 고창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10점과 유물의 형태·무늬를 그림으로 재현한 영상을 함께 선보인다. 유물을 가까이서 관람하며 원래 형태를 유추해 보며, 조선시대 미학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분청사기는 백자와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회청색 태토 위에 백토를 입혀 다양한 기법으로 문양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자유롭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분청사기는 조선시대 도자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을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학생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친근함과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부담 없는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고인돌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이달의 유물은 박물관에서 보관·관리하는 국가귀속 유물을 활용한 전시 콘텐츠로 국가귀속 유물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유산을 관람객에게 소개하고자 기획됐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유물 조각에 담긴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8월 4일 화요일

나눔으로 일군 값진 성과 정읍시새마을회 최고 등급 획득

정읍시새마을회(회장 이경연)가 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 '2025년도 시군구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새마을회를 대상으로 조직관리와 재정자립, 중점운동 등 7개 분야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정읍시새마을회는 모든 평가 지표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현장 중심의 실천사업과 체계적인 조직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시새마을회는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홀몸어르신 영양식 반찬 나눔'을 통해 23개 읍면동 1500여 가구에 반찬을 전달했고, '김치문화사랑운동'으로 배추 2400여 포기의 김치를 직접 담가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탰다.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도 이어갔다. '제25회 청소년 인문학 캠프'를 운영해 청소년 80여 명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공동체 정신을 배울 기회를 제공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5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는 대통령 훈장을 비롯해 정읍지역 유공 지도자 14명이 수상하며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A등급 달성은 정읍시새마을회의 우수한 역량과 현장 중심의 실천력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새마을회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해경, 반부패·청렴 실천 서명식 개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은 3일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 직원들은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문을 함께 낭독한 후 서명에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이날 군산해양경찰서는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 △청렴 서명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음주운전, 갑질, 성비위 등 공직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행위 근절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와 각종 사건·사고 등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작은 비위행위도 조직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채호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군산해양경찰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향서 공부하고 취업까지 정읍 청년취업반 '합격 행진'

정읍시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이 2023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공무원·금융기관·공공기관 합격자 67명을 배출했다.

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지 않고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전문학원에 위탁해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성과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23년 6명을 시작으로 2024년 14명, 2025년 22명이 합격한 데 이어 올해는 7월 말 기준 25명이 합격했다. 올해 합격자는 지난해보다 3명 늘었으며, 공무원 24명과 공공기관 1명으로 집계됐다.

준비반은 전문 강사진의 체계적인 강의와 수강생별 학습관리, 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제공해 실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청년들이 정읍에서 배우고 성장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맞춤형 징수 행정 '착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11월까지 현장 징수 돌입

익산시가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건전한 지방재정의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돕는 맞춤형 징수 행정에 착수했다.

익산시는 3일 익산시청사에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체납 관리 활동에 돌입했다.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현장 중심의 세무 행정을 강화하고자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철저한 면접을 거쳐 선발된 실태조사원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100만 원 미만의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납부 안내와 체납 원인 파악 등 밀착형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독촉을 넘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구체적인 사유를 면밀히 조사하는 상담사 역할도 맡는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해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해 도움이 시급한 위기가구는 즉시 복지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긴급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수·복지 병행 행정을 펼친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심도 있게 공유하고,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다짐하는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생계형 위기가구는 온정 가득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행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부스 운영자 모집

18일까지 접수

군산시가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6 제14회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프리마켓과 주전부리 부스 운영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제14회를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는 군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군산의 대표 축제로,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구시청광장과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민이 축제의 주체로 참여하는 축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는 축제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상권 매출 증대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분야는 프리마켓 16팀과 주전부리 10팀으로 총 26팀이며, △프리마켓은 수제품, 생활용품, 식품(완제품), 액세서리 등 프리마켓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전부리는 음식, 음료, 간식 등 축제에 어울리는 먹거리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자이며, 주전부리 분야는 관련 업종의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에 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군산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행사 운영팀으로 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정읍, 외국인 안정 정착 지원 2(題)

군산시, '생활가이드북' 배포

군산시가 관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군산시 외국인주민 생활가이드북'을 제작 ·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외국인주민이 군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생활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가이드북에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 △근로·노무 △건강·의료 △육아·보육 등 외국인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1개 분야의 정보를 담았다. 또한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5개 외국어를 함께 수록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금체불, 주거 문제, 폭력 피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신고 절차를 안내해 외국인주민이 필요한 지원체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제작한 가이드북을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했으며, 군산시 누리집에서도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가이드북이 외국인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초기 정착은 물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계절근로자에 쌀 나눔

따뜻한 정 전달

정읍시 관내 농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정읍시조합운영협의회(협의회장 유형기)가 지난 7월 31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쌀 450kg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를 찾아 고국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근무하며 정읍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 힘쓰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나눔은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형기 협의회장은 "정읍 농업과 농민들에게 큰 힘이 돼주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이번 나눔을 통해 정읍의 따뜻한 정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써주신 농협 조합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문화도시 익산, 5년 성과 한자리에"

6~7일 성과공유회 개최

익산시가 법정문화도시 지정 이후 지난 5년간 시민들과 함께 일궈온 성과와 미래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오는 6~7일 이틀간 익산시청에서 '문화도시익산 5년 성과공유회'를 전격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해 온 익산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결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향후 이어갈 법정 지정 이후 단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은 6일 오후 1시에 열리며, 이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참여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운영된다.

행사 기간에는 시민과 함께 지난 5년의 여정을 돌아보는 '문화도시 시민투어'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일자리 및 수익 창출 사례를 공유하는 '사람이 남았다' 기획 발표가 진행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즐길 거리도 다양하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시도해 큰 호응을 얻었던 가상증강현실(AR) 추리게임을 '익산백제, 무왕의 금관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다시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시장실 공간을 친근하게 개방하는 '시장실에 놀러와' 프로그램도 운영돼 문턱을 낮춘 소통 행정을 실현한다.

원도연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문화도시의 저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

"야외 활동 자제하고 수분 섭취 충분히" 강조

익산소방서(서장 소철환)가 최근 익산지역에 폭염경보 발효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지난 2일부터 익산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를 웃돌아 온열질환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이다.

온열질환은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 등이 있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야외 근로자는 폭염에 취약한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햇볕이 강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의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야외활동 시에는 그늘이나 실내에서 짧게 자주 휴식을 취하고, 물과 이온음료를 자주 섭취해야 한다. 또한 외출할 때는 밝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만약 야외활동 후 어지럼증, 근육경련,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휴식을 취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의식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소철환 소방서장은 "온열질환은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진=익산소방서>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통합미곡종합처리장 '선별시설' 가동

정읍시가 정읍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에 색채선별기와 이물선별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지역 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미곡종합처리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보조사업으로 추진됐다. 시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쌀 선별 설비를 확충하고 노후 안전관리시설을 개보수했다.

새로 설치한 색채선별기는 쌀의 색상과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품질이 떨어지는 쌀알을 골라낸다. 이물선별기는 가공 과정에서 섞일 수 있는 돌과 금속 등 각종 이물질을 제거해 최종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노후 안전관리시설도 함께 정비했다. 이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가공시설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했다.

시는 새 선별시설이 정읍 쌀의 품질 균일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지역 쌀의 상품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5~24까지 의견제출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

군산시는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개별주택 257호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1,506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으로서 시청 세무과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내달 30일자로 최종 결정 · 공시하게 된다.

시는 "시 누리집 공고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산정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는 물론 각종 공과금,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정부 예산안 반영 "끈질긴 설득"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최정호 익산시장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3일 정부 예산안의 열쇠를 쥔 기획예산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시의 사활이 걸린 주요 국비 사업 반영을 촉구하고,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지역 정치권과 예산 사수를 위한 전방위 총력전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예산 심의 책임자를 직접 설득해 미온적인 사업을 전격 관철시키고, 계속사업의 국비를 증액하기 위해 설계한 전략적 '지속형 현장 행정'이다.

이날 최 시장은 먼저 기획처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리적 당위성을 앞세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다.

아울러 규모가 큰 계속사업인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이어 여의도 국회로 자리를 옮긴 최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실과 전문위원실을 찾아 연쇄 면담을 갖고 민선 9기 익산 대전환을 이끌 대형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정치권 철통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최 시장은 의원들에게 △제2차 공공기관 익산 유치 △익산역 복합개발 및 광역거점 구축 △피지컬 AI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피지컬 AI 실증 시범도시 구축 등 시의 미래 지형을 바꿀 핵심 현안에 국회 차원의 조직적 화력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익산의 미래 백년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신산업과 민생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누락 없이 온전히 담기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체험·교육 기회 확대 2(題)

가족 체류형 여름 행사 운영

7~10일까지

부안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복컴랜드 플리마켓&귀신놀이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센터를 활용해 가족과 어린이,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하고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내 공간을 적극 활용한 몰입형 프로그램을 통해 무더운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행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오는 7일에는 '복컴랜드 플리마켓'이 열린다.

'우리 동네 오프라인 중고장터'를 주제로 주민 참여형 플리마켓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중고 거래의 편리함과 오프라인 장터의 즐거움을 접목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이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는 여름 시즌 대표 콘텐츠인 '복컴랜드 귀신놀이터'가 운영된다.

센터 실내 곳곳을 활용한 공간 몰입형 방 탈출 액티비티로 참가자들이 건물 곳곳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미션을 해결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여름에 어울리는 오싹하면서도 흥미로운 테마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센터가 단순한 공공시설을 넘어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머물며 즐기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동 힐링 영어캠프' 개최

다양한 문화 경험

부안군 아동들이 원어민과 함께 생활 속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2026 지역아동 힐링 영어캠프'가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3박 4일간 진서면 운호지역아동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17번째 개최하는 이번 캠프는 운호 지역아동센터 주관으로 아동들과 원어민 강사, 자원봉사자 등 110여 명이 함께하는 영어 체험 활동 중심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학습과 놀이,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풍성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지역아동 힐링 영어캠프는 교실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벗어나 원어민과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참여 아동들은 수준별 영어회화와 영어 학습 멘토링을 비롯해 영어 노래와 댄스, 영어 퀴즈, 영어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게 된다.

또한 물풍선 놀이와 영어를 활용한 물건 사기 체험 등 놀이 중심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 아이들이 친구들과 협력하며 영어를 실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습과 놀이를 접목한 프로그램은 영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즐거운 배움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상윤 부안군 부군수는 "지역아동 힐링 영어캠프가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활기찬 노후 돕는다"

허약노인 건강관리 '호응'

고창군보건소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등록된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과 신체기능 유지를 돕기 위한 허약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24회기로 진행되며,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고 활기찬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비롯해 심폐소생술·정신건강·영양교육, 아로마 테라피, 원예 활동, 미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매 회기 마지막 1시간에는 리커버링 운동을 실시해 근력과 유연성을 높이고 근골격계 건강을 증진하는 맞춤형 운동을 진행한다.

리커버링 운동은 허약 노인도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으로,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근력을 강화해 낙상 예방과 신체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보건소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함께 지원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허약노인의 건강관리는 질병 치료보다 예방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무료 영화 '와일드씽' 상영…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부안군은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하루 2회에 걸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8월 무료 영화 '와일드씽'을 상영한다고 밝혔다.

영화 '와일드씽'은 강동원, 엄태구, 박지현, 오정세 등 개성 있는 배우들이 출연하는 코미디 영화로 한때 뜨거운 인기를 누렸던 혼성 댄스그룹 멤버들이 뜻밖의 계기로 다시 모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가던 인물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마주하며 펼치는 좌충우돌 에피소드와 배우들의 뛰어난 호흡이 웃음을 선사한다.

여기에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따뜻한 메시지를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오락영화다.

12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별도의 예매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무더위에 지친 군민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신나는 음악과 강동원 배우의 유쾌한 에너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 상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장학금 후원 참여 확대

문체사업소 찾아 사업 소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찾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단의 주요 장학사업을 소개하고 장학금 후원 참여 확대를 위한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홍보 릴레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캠페인에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 다자녀장학금과 특기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소개하고 더 많은 군민의 후원이 모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직원들의 홍보를 통해 주민과 문화예술인, 체육 관계자 등이 후원계좌에 가입할 경우 후원 실적에 따라 우수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도 안내했다.

사업소 직원들은 문화예술인과 체육 관계자들에게 재단의 장학사업과 후원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뜻을 모았다.

이미경 사업소장은 "장학금 후원은 지역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힘"이라며 "문화예술인과 체육 관계자들에게 장학사업을 적극 알리고 후원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8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개꿩' 선정… 홍보 활동 추진

고창군이 8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개꿩(학명 Pluvialis squatarola)'을 선정하고,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철새 이동경로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꿩은 북극권인 러시아와 북미 툰드라 지역에서 번식하고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월동하는 대표적인 나그네새다.

우리나라에는 봄과 가을 이동 시기에 찾아오며, 고창갯벌에서는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먹이를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개꿩은 몸길이 약 29~31㎝의 비교적 큰 물떼새로, 평소에는 회색빛 깃털을 띠지만 번식기에는 얼굴부터 가슴, 배까지의 깃털이 검게 변해 다른 물떼새와 쉽게 구분된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개꿩은 매년 고창갯벌을 찾는 대표적인 나그네새로, 건강한 갯벌 생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물새다"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대표 조류를 통해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건강한 갯벌 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경관보전 직불금 12억원 지급

농업소득 향상 농촌관광 활성화 효과

김제시는 오는 7일까지 농업인(법인 포함) 2026년 경관보전 직불금(동계) 12억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경관보전 직불금은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작물 및 준경관작물을 재배해 농촌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과 연계한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으로 경관작물(헤어리베치) 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청보리) ha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들 작물은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특히 헤어리베치는 녹비작물로도 활용돼 토양비옥도와 지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전년 대비 경작면적이 392ha 증가하는 등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아울러, 진봉면에서 15년 연속 개최된 '새만금보리밭축제'와 연계되면서 봄철 청보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농촌풍경은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도시민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지역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선사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직불금은 사업에 참여한 농가 1,034명(1,403ha)을 대상으로 6일부터 7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에 개별 지급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아름다운 농촌경관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와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더불어 직불금 정책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안정에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통합방위 대응체계 강화

을지연습 훈련 점검

김제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3분기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의장 정성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의장인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 김제 경찰서장, 제8098부대 3대대장, 김제 소방서장 등 위원 18명이 참석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 훈련을 점검하고 통합방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 오는 19일 오후 3시, 김제 GS칼텍스 전주물류센터에서 진행될 실제훈련인 '사회기반시설 드론 테러 대응훈련', △ 20일 '다중이용시설 주민 대피훈련'에 대한 훈련 단계별 대응 절차와 유관기관 간 역할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특히, 을지연습 계획 보고, 8098부대 작전상황 보고, 기관별 안보 현안 공유 및 통합방위태세 점검 등을 통해 민·관·군·경·소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재확인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마련했다.

정성주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민·관·군·경이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도시 김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문화원, 7일까지 하반기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김제시는 김제문화원(원장 박현)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하반기 문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교실은 시민 누구나 일상속에서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하반기 문화교실은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서예·한국화·민요·한시·인문학 등 총 5개 강좌를 개설한다.

모집 인원은 과목별 20명씩 총 100명이며,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는 개설되지 않을 수 있다. 수강료는 강좌당 1만 원이다.

수강 신청은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김제문화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김제문화원은 올해 상반기 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이번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박현 김제문화원장은 "문화교실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기며 삶의 활력을 얻는 소중한 배움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김제문화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해양오염사고 예방 '총력'

예방 컨설팅·집중 관리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승원)는 여름철 태풍 내습 및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해상공사현장에 동원된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 및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안, 고창 해역에서 항만, 어항, 연륙교 등 해상공사가 활발해지며 공사에 동원되는 예인선, 크레인선 등 선박의 입출항 증가로 해난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최근 해상공사 선박의 침수, 좌주 등 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률이 높은 상황이다.

부안해경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관내 해상공사 8개소에 동원된 작업 선박에 대해 △선박 발생 오염물질 적법 처리 여부 △오탁방지막 설치 등 공사현장 오염물질 해양 유입 방지 실태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황성훈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상공사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해상공사에 동원되는 선박에 대해 집중 관리를 추진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군정소통회의 생중계

열린 군정 첫발

심덕섭 고창군수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군정소통회의를 생중계로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고창군은 기존 내부 보고 중심의 간부회의를 토론형 군정소통회의로 바꾸고, 첫 의제로 폭염대응을 선택하면서 군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군정과 고창 대도약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군은 앞으로 매월 첫째주 기존 확대간부회의를 군정소통회의로 전환해 유튜브 공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심 군수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고령 어르신들의 폭염 대비가 취약하다"며 실·과·읍·면장들과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폭염대응책을 살펴보고, 추가 정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거점 무더위쉼터의 경우 야간 연장 운영과 주말 개방을 하고 있으며, 마을 방송 횟수를 기존 일 1회에서 2~3회로 늘려 주민들의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를 독려하고 있다.

가뭄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수지 평균 저수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양수기, 송수호수 등 가뭄 대책 장비 사전 확보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폭염과 가뭄은 군민의 생명 및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재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농작물 피해와 생활용수 불편이 없도록 가뭄 해갈 시까지 비상 급수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어가 폭염 대비 상황 점검

양식장 애로사항 청취

<사진=김제시>

여름철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양식장의 폭염 대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김제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는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집중 예찰기간 동안 취약지구 양식장 60여 개소를 돌며 폭염 대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은, 온도 변화에 민감한 어류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 질병 발생과 집단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양식장의 대비 상황을 확인하고, 준비가 미흡한 어가에는 개선 사항을 안내하며, 피해 발생 시 어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및 입식·출하 신고를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 특보 발령에 따라 상시 인력을 배치해, 문자·전화를 통한 안전 수칙을 전파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양승환 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은 "올여름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군, 추석 전 민생지원금 푼다

9월 8일부터…1인당 30만원 선불카드 연말까지 사용

완주군이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 및 지급기간은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특히 지급 초기 혼잡을 줄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9월 8일부터 13일까지를 집중 지급기간으로 운영한다.

신청 및 지급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집중 지급기간에는 경로당 등에 방문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대상자 확인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완주군 지역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 내 내수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은 군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8월부터 군 홈페이지, SNS, 마을방송, 홍보 안내문, 현수막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읍·면과 협력하여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향후에도 국내외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국립의전원 남원으로"

국회 찾아 지역 현안 건의 핵심사업 예산 반영 공조 강화

<사진=남원시>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양 시장은 박지원 국회의원을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남원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희승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 ▲지리산권 탐방로 정비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등 지역 핵심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정부예산안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 시장은 "정부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 심의까지 단계별 대응을 강화해 남원의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대학과 장류축제 글로벌 홍보 '맞손'

전주대·전주비전대와 협약 외국인 유학생 참여 확대

순창군은 3일 전주대학교 및 전주비전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 지역참여 확대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순창군과 양 대학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이자 예비 글로벌 축제인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대한민국 대표 장류문화와 지역문화를 알리는 등 지역 문화 진흥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행사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순창장류축제 외국인 유학생 참가 확대 및 유학생 중심의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협력 △전주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순창 관광지 할인 및 장류축제 체험프로그램 쿠폰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북대학교에 이어 전주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까지 협력기관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순창장류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장류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순창군은 축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장류축제를 계기로 외국인 유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K-푸드와 전통 장류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의회, 지역 활력 정책 제언 2(題)

유이수 "체류형 관광정책 전환해야"

유이수 의원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은 3일 열린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를 찾는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관광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체류형 관광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이동·숙박·식음·체험을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완주가 가진 자연과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 체류시간을 늘리는 관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완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완주에서 사용한 여행경비 일부를 완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관광 인센티브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둘째,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구축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오성한옥마을, 대승한지마을 등 완주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해 한복·다도·공예·전통음식 등 체험과 한옥 숙박을 연계한다면 완주만의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외국어 안내 체계 구축과 여행사 연계 등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부건, 주민주도 마을축제 활성화 제안

심부건 의원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은 3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완주의 특성을 살린 주민 주도형 마을축제를 활성화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대규모 축제 예산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체감하는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 참여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이미 검증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 의원은 완주형 마을축제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완주형 작은 마을축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주민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 문화기획자 양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돌봄,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접목한 특색 있는 마을축제를 육성해 지속가능한 지역 축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 의원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주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치과진료 운영 확대

구강이동진료차량 확대 사업거점마을 52곳 지정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치과의료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구강이동진료차량'을 확대 운영하고, '구강사업 거점마을'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구강이동진료차량은 치과 진료 장비를 갖춘 이동식 차량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읍면 지역을 직접 찾아가 구강검진, 스케일링,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공중보건의 감소로 보건지소 치과실이 3개소(운봉·금지주생·아영)로 축소 운영되면서, 치과실이 없는 읍면 주민들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낮아지고 동·읍면 간 구강건강 격차 심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 구강이동진료차량을 전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기존 운영 방식을 개선해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13개 읍면의 52개 경로당을 '구강사업 거점마을'로 지정하고, 해당 거점 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도 함께 구강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구강사업 거점마을'은 구강이동진료차량이 방문하는 중심 마을로, 인근 여러 마을 주민이 함께 예방진료와 구강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도로 여건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워 그동안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마을이 인근 거점마을과 합동으로 진료 및 예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동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반기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읍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마을 이장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참여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청 역도팀 실업연맹회장배 金2·銅3 선전

<사진=순창군>

순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전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순창의 위상을 드높였다.

순창군청 역도팀(감독 1명, 선수 3명)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충남 서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26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친 주인공은 황수민 선수다. 95kg급에 출전한 황수민 선수는 인상에서 160kg을 들어 올리며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용상에서도 190kg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인상과 용상을 합한 합계 350kg으로 체급 종합 1위에 오르며,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75kg급에 출전한 장서진 선수 역시 값진 성과를 보탰다. 장서진 선수는 인상 132kg(4위)과 용상 160kg(3위)을 기록, 합계 292kg으로 체급 종합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 2개(용상, 합계)를 추가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완주군이 지방세입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3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근로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단원들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를 다각도로 조사해 유형별 맞춤 체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체납 독촉에 그치지 않고 체납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보류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발굴하면 복지 부서와 즉시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산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제2회 양지천 사진공모전 접수 시작

순창군이 양지천과 경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낼 '제2회 양지천 사진공모전' 작품을 모집한다.

'양지천·경천에 반하다'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두 하천을 배경으로 한 자연경관과 소소한 일상을 사진으로 담아, 주민과 관광객이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작품 접수 기간은 3일부터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순창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또는 팀(최대 3명)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1인(팀)당 최대 2점까지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수상작은 2026년 9월 중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으로 대상 1명(팀) 상패와 상금300만원, 최우수상 1명(팀) 상패와 150만원이 주어지며, 우수상 및 입선작 등 21개 작품을 선정한다.

작품 접수는 순창군청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출품작은 응모 자격 및 출품 규정 등을 확인하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본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 비비정예술열차 민간 운영자 공모

완주군이 지역 대표 관광 명소인 '비비정예술열차'를 운영할 역량 있는 민간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다.

입찰 대상 시설은 폐열차를 리모델링한 열차 3동과 조리실을 포함한 303㎡ 규모다. 지정 업종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낙찰자는 시설 특색을 살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게 된다.

선정 방식은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는 최고가 낙찰제다. 개찰은 오는 8월 18일 오전 10시 완주군 문화역사과에서 진행된다.

이번 입찰은 오는 8월 31일 비비정 인근에 전주·완주 상생사업인 '만경강 물고기철길'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완주군은 새로운 랜드마크인 물고기철길 개통으로 주변 관광 동선이 연결되면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 비비정예술열차의 새로운 운영자에게도 강력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방학맞이 양서·파충류 특별기획전

남원시는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세계 각지에 서식 중인 양서·파충류를 전시하는 '허브밸리를 찾아온 특별한 친구들!'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산림청 등의 후원을 받아 녹색자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기획전은 생태교육을 통해 생태계와 자연 보호의 가치를 배우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생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획전에서는 세계 각지의 신비로운 양서·파충류 15여 종 30여 마리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생태 전시와 함께 각 종의 서식지와 습성에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양서·파충류에 관련된 책을 읽으며 휴식할 수 있는 독서 쉼터 또한 마련돼있어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선사한다.

이 밖에도 지리산허브밸리에서는 열대식물원, 느티나무 숲길, 수국길 등 다양한 볼거리가 조성돼있으며, 반려식물키우기, 식물원 해설 등 체험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전 연령 관람 가능하며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오후 5시 입장 마감) 운영하며, 지리산허브밸리 입장객은 별도 추가 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서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운영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이 추진하는 '2026년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현장 중심의 국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해외영어캠프는 지난 7월 31일 출국해 오는 8월 17일까지 16박 18일간 진행되며, 남원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24명이 인솔자와 함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위치한 호윅 중학교(Howick Intermediate School)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정규수업을 듣고 영어를 익힌다. 또한 학교 활동과 홈스테이를 통해 현지 생활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국제적 감각과 문화적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연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출국 전에는 연수 일정과 안전수칙, 현지 학교생활, 홈스테이 예절 등을 중심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지에서도 인솔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

춘향장학재단 이사장(양충모)은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읍지사협 제철김치 나눔 행사 실시

임실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기찬, 박만식)는 지난달 30일 행복누리원 3층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등 하반기 협의체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협의체 특화사업인 제철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싱그러운 제철김치 나눔 행사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하여 30여 가구에 2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열무, 고구마순 등 제철 식재료로 담근 김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실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제철김치를 각 가정에 전달하며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의 건강상태 및 안부를 확인하며 지역사회 나눔의 사랑을 실천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서전주로타리클럽·우리소방, 무주군에 LED 독서등 기부

국제로타리3670지구 서전주로타리클럽(대표 최대수, 2백만 원 상당)과 (유)우리소방(대표이사 김영희, 1백만 원 상당)이 무주군에 3백만 원 상당의 청소년 LED 독서등 64개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학업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마음 속에 '희망의 빛'을 심어주고 싶다는 후원자들의 뜻에 따른 것으로, 전달식에는 서전주로타리클럽 최대수 회장을 비롯해 권현호 부회장, 김갑배 이사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최대수 서전주로타리클럽 회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비롯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 가는 데 희망을 주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8월 성수기 대비 물놀이 안전관리 집중 기간 운영

진안군이 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주요 물놀이 지역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8월은 연중 물놀이 피서객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진안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물놀이 안전관리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수영 금지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군은 점검 과정에서 작은 위험 요소라도 발견되는 즉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출입 통제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려는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항공·우주 중심도시 실현

황인홍 군수, 전 직원 대상 항공우주산업 통한 미래 100년 청사진 공유

무주군 공직자들은 3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대한민국 항공·우주 중심도시 무주 실현'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자리에서 직접 발제에 나선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주산업이 미래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공우주산업을 통한 무주군의 미래 100년 청사진을 공유했다.

무주군은 현대로템(주)의 3천억 원 규모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1백 억 원 확보)되며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로의 중요한 기반을 확보한 상태다.

현대로템(주)의 산업단지 조성 및 생산시설 구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기반시설, 투자지원 등 행정 전반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며 산업 생태계 구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반 시설 확충, 연계기업 유치, 연구개발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우주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도약의 기회를 잡은 만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를 중심으로 행정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대표 항공우주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자"라며 "투자선도지구 선정이 사업을 구체화하고 우리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무엇보다 무주 항공·우주 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은 물론, 미래 첨단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규제 특례와 행·재정 지원을 활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투자선도지구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백억 원과 현대로템 항공우주 산업단지 조성을 토대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대전권 연구개발 클러스터와 연계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공직자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기업 투자유치와 국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무주에서 우주로, 대한민국의 미래로'라는 비전을 반드시 실현해 내자"라고 강조했다.

현대로템 항공우주 민간 산업단지 조성(3,034억 원)을 포함한 3,488억여 원 규모의 무주군 항공우주 종합 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오는 2034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무주군은 지난 3월 현대로템, 전북특별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원스톱 통합 SNS 홍보 체계 구축

부서별 홍보 통합 숏폼 콘텐츠 확대

임실군이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정 홍보의 효율성과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로 분산된 홍보기능을 하나로 묶는 '통합 SNS 홍보체계'를 본격 구축하며 군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군은 기존의 단순한 정보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부서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통합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신 SNS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적극 제작·운영해 군민과 관광객이 쉽고 재미있게 군정을 접할 수 있는 디지털 홍보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임실군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4개의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정소식과 관광·축제·농특산물·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공식 SNS 구독자는 2024년 말 3만 8,103명에서 2026년 6월 말 기준 5만 5,933명으로 약 46.8%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이번 통합 SNS 홍보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에 부서와 읍면별로 개별 운영되던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문화·관광, 축제, 농특산물, 복지, 농업 등 분야별 주요 홍보자료를 사전에 통합 관리하고, 시의성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 콘텐츠를 기획회의를 거쳐 공식 SNS를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복 홍보를 줄이고, 군정 주요정책과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홍보의 완성도와 확산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한, 부서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하나의 콘텐츠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군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군은 디지털 홍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우수 지자체 사례도 적극 벤치마킹한다.

유튜브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고있는 충주시를 비롯해 인스타그램 운영이 활발한 울산 남구, 경남 양산시, 전북 군산시 등의 우수사례를 분석해 임실군만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 제작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축제 중심 홍보에서 한 걸음 더나아가 생활밀착형 정책과 군민 이야기, 공직자의 현장활동 등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선보일예정이다.

군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해 '전 직원 숏폼 영상 경진대회'와 '간부 챌린지' 등을 운영하고,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형 홍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평지마을 '행복 나눔방' 준공

주민 소통·문화복지 공간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대

장수군은 계남면 평지마을에서 '평지마을 행복 나눔방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정우 장수부군수, 문재표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환영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계남면 평지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2024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평지 행복 나눔방은 연면적 98.24㎡(약 29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지난해 8월 착공해 올해 4월 준공됐으며, 다목적실과 주방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특히 행복 나눔방은 주민 소통과 교류를 위한 마을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고품질 프리미엄 수박 육성 박차

연간 3천여 톤 생산 및 출하

무주군 '흑미수박' 출하가 한창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안성면 무주농협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하루 1백여 톤이 수매·선별·출하되고 있다.

'흑미수박'은 무주군 대표 소득작목으로 4백m 이상 고랭지에서 재배돼 일반 수박에 비해 껍질이 얇고 색이 짙으며 당도가 높아 전국 소비자와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 내 설천·안성면 지역에서 총 90여 농가가 연간 3천여 톤을 생산·출하하고 있으며 4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무주군은 이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무주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시장가격 등락에 따른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무주군은 안성면 친환경유통센터와 설천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8월 중순까지 수매와 출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3일 무주농협친환경유통센터를 찾아 '흑미수박'의 수매 및 선별 과정을 직접 살피고, 현장에서 만난 흑미수박 재배농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업인들과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상황과 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사진 공모전'

19년간 축제의 추억을 한장에

장수군은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2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개최를 기념해 역대 축제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는 '추억의 사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지역 대표축제로 성장해 온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의 지난 20년을 군민과 관광객의 사진으로 함께 돌아보고, 축제의 발자취를 기록·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제1회부터 제19회까지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행사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축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퍼레이드 등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행사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공식 홈페이지 내 '추억의 사진전' 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는 해당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직접 촬영한 축제 사진과 관련 내용을 입력해 제출하면 되며,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접수된 사진은 축제 홈페이지에 게시돼 역대 축제를 찾았던 관광객과 군민들의 다양한 추억을 함께 나누는 온라인 사진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은 여름방학 및 여름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사진=임실군>

임실군, 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민·관합동 지도·점검 실시

임실군은 여름방학 및 여름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임실군, 임실경찰서, 임실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10여 명이 참여하여 관내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학교 주변 상가 일대의 일반음식점, PC방,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 100여 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계도 및 캠페인 활동을 실시한다. 지도·단속 활동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유해약물 판매, 유해매체물 표시 방법 준수,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캠페인 활동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을 명시한 리플릿, 홍보물품 배부와 함께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장수군이 오는 11월 26일까지 군의 모든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정확한 주민등록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9월 7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실시되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세대의 대표자 1명이 앱에 접속해 세대원 전체에 대한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이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지사면 이장협의회, 전출·신규 직원 응원

임실군 지사면 이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이장회의 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맞아 전출한 직원(이지은 주무관, 김민서 주무관, 신수진 주무관)을 격려하고 새로 부임한 직원(정희천 맞춤형복지팀장, 김진희 주무관, 김효정 주무관)을 환영하기 위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사면 이장협의회 회원과 지사면사무소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전출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새로 부임한 직원들에게는 환영의 박수가 이어지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전홍묵 이장협의회장은 "그동안 지사면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전출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 오신 직원분들께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장협의회 역시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실=한병열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취약계층 아동 의료봉사 실시

김제시는 지난달 31일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이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아동들의 구강 건강 증진과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다목적실 및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의료진과 학생으로 구성된 봉사자 30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구강질환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레진 수복, 유치 발치,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다양한 치과 진료 서비스와 구강 교육을 제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구강질환 예방에 힘썼다.

이번 의료봉사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구강 건강 증진은 물론, 미래 치과의사로 성장할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대성농협, 폭염 속 생수 2천병 지원

주민 온열질환 예방 나눔 활동 지속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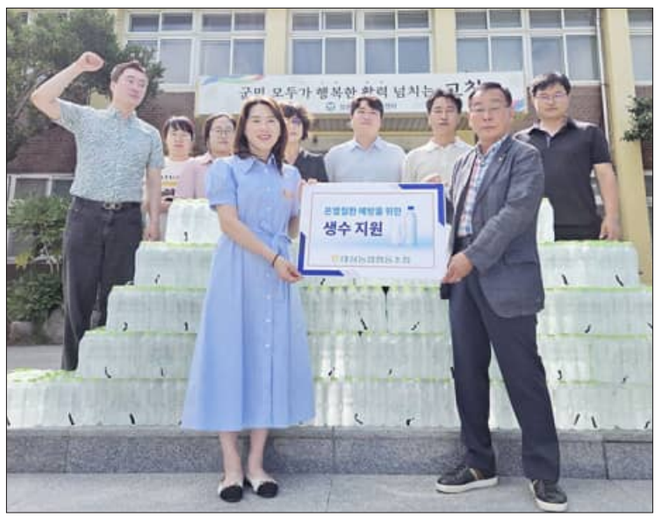
고창군 대성농협(조합장 박윤규)이 지난달 31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대산면민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대산·성송면에 각 생수 1000병씩을 지원했다.

대산·성송면은 지원받은 생수를 마을별로 배부하고 폭염 행동요령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박윤규 대성농협 조합장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영 대산면장, 김선미 성송면장은 "지원받은 생수는 필요한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 낙농가, 어르신에 우유 정기 후원

매월 840개씩 1년간 기부

익산 지역 낙농인들이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정성이 가득 담긴 우유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하고 있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낙농인연합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날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랑의 나눔 기부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낙농업계가 앞장서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낙농인연합회와 전북도지회는 지역 노인들의 올바른 영양 섭취와 체력 관리를 돕기 위해 매월 840개씩, 1년간 정기적으로 우유를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기부 물품은 유당을 분해해 유당불내증이 있는 이들도 배앓이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유당 제거(락토프리) 우유'로 준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화산농협 조합원 한방의료봉사 진행

완주군 화산농협(조합장 김종채)은 지난달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농협 2층에서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화산농협은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매년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상산동문회와 함께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학생 11명과 의료진 2명이 참여하여 디스크, 관절염, 소화불량 등을 앓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침 및 뜸을 비롯한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150명의 고령 조합원이 의료봉사 혜택을 받았다.

화산농협 김종채 조합장은 "매년 우리 화산면을 방문하여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상산동문회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화산농협은 앞으로도 우리 농가들의 의료복지 향상 및 농촌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청소년들 농촌진흥청서 진로체험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재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특별프로그램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운영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교육은 농촌진흥청의 주요 역할과 농업연구사의 직무 소개로 시작해 청소년들은 과실의 당도와 산도를 측정하는 원리를 배운 뒤 직접 과일을 착즙해 측정해 보는 실습에 참여했다.

단순한 직업 소개를 넘어 실제 농업연구 현장에서 쓰이는 측정 도구와 분석 방법을 직접 경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참여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농업연구 분야를 친근하게 접하며 농업과 생명과학, 식품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교육 프로그램

익산시가 아동양육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서도 건강하고 온전한 일상을 꾸려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 기술을 전수하는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지역 내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 조리 교육 프로그램인 '열여덟 어른, 밥상은 처음이라'를 전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설 퇴소를 앞두거나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 30명이 참여해 삶의 독립을 준비한다.

시는 가공식품이나 배달음식에 의존하기 쉬운 초보 자립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필수 생활 기술을 체득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농협, 2년 연속 성금 600만원 기탁

부안군은 부안농협이 지역상생과 부안군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6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안농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2년 연속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기부는 김원철 조합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세액공제·답례품 등 기부 혜택을 직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특히 부안농협 임직원들은 지역농업 발전과 부안군의 활력 제고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 확산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힘을 보탰다.

김원철 조합장은 "직원들과 함께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2년 연속 기부에 동참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정읍시치매안심센터 치매 돌봄 가족교실 마무리

정읍시치매안심센터가 치매·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10명을 대상으로 8차례 운영한 가족교실 '헤아림'을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가족들에게 올바른 치매 돌봄 지식을 제공하고, 장기간의 돌봄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헤아림' 교재를 활용해 치매와 환자 돌봄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가족 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돌봄 역량을 높였다.

공예와 원예 활동 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가족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들과 고충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

/정읍=김정인 기자

〈一事一言〉

21세기 산지기

배해수
무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고고인류학 박사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오후, 평소 가깝게 지내는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시간이 되면 함께 벌초를 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하지 못했다.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고향을 오간다. 산에 심어 놓은 고사리밭을 돌보고, 종중일을 살피고, 선영을 둘러보는 것이 이제는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산지기나 종지기, 제지기라는 이름을 거의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은 사라졌어도 그 역할은 아직 남아있다. 산을 돌보는 산지기이고, 밭을 가꾸는 밭지기이며, 시제를 준비하는 제지기이고, 종중의 살림을 맡는 종지기이기도 하다. 어느새 그 모든 일이 내 몫이 되었다.

원래는 큰형님이 감당하셔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형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종손 집안의 막내인 내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마다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하나둘 맡은 일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여러 이름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되었다.

며칠 전에도 친구 부탁으로 새벽부터 그 집안 벌초를 도와주고 돌아왔다. 그런데 정작 우리 선영은 아직 제대로 손보지 못했다. 산에 심어 놓은 고사리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예초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우거졌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승용 풀깎기 기계를 빌려 길과 밭을 정리했지만 선영은 둘레만 겨우 한 바퀴 돌았을 뿐이었다.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 선영부터 먼저 손보지 못했다는 마음이 내내 걸렸다. 그래서 다른 집안 벌초를 선뜻 맡는 일이 더욱 조심스러웠다.

벌초는 추석을 앞두고 한 번 다녀오면 되는 일쯤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막상 해 보면 그렇지 않다. 예초기를 메고 산을 오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하루를 꼬박 보내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두 번, 세 번씩 묘소를 찾는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귀하게 느껴진다.

작년 여름, 순창의 한 마을회관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다. 이른 아침 마을을 걷다가 동네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길가에 풀이 허리 높이까지 자란 묘소를 가리키며 투박한 전북 사투리로 말씀하셨다.

"자식덜이 몇 해째 오덜 않응게 조렇게 묵어부렀제."

할머니의 안타까워하는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 묘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농촌 곳곳에서 마주하는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누구나 해마다 찾아오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삶이 바빠질수록 발걸음은 점점 뜸해진다. 고향은 멀어지고, 묘소도 바쁜 삶의 뒤편으로 조금씩 밀려난다. 그렇게 사람의 발자국보다 풀이 먼저 자라난다.

요즘에는 벌초 대행업이 자연스러운 벌초 대안이 되었다. 도시에서 시골에 직접 내려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이고 시대가 만든 새로운 문화이기에 그것을 탓할 이유는 없다. 다만 어떤 서비스도 대신하지 못하는 것은 잠시 묘 앞에 서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조상의 이름을 떠올리는 일이다. 풀은 대신 베어 줄 수 있어도 그 시간만은 대신 이어 줄 수 없다.

예초기를 잠시 멈추고 선영을 둘러볼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집안 족보를 따라 헤아려 보면 후손은 수천 명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스물여섯 기의 묘소를 돌보는 사람은 수십 년째 작은형님과 나, 단둘뿐이다. 매년 종중회의에서는 현실을 생각해 묘소를 줄이고 표지석으로 남기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언젠가는 한국의 장례 문화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달라질 것이다.

선영을 돌보는 일은 풀을 베고 주변을 정리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 집안의 시간을 이어 가는 소중한 일이다. 누군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와 이름을 불러 주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기억해야 오래된 시간도 오늘과 이어질 수 있다.

예전에는 산지기와 종지기, 제지기라는 이름이 흔했다. 지금은 그 이름도, 그 역할도 점점 오래된 기억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래도 누군가는 말없이 산을 오르고, 밭을 돌보고, 조상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면서 종중의 일을 이어 간다. 그들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서는 한 집안의 역사와 세월이 이어지고, 다음 세대에게 건네질 기억도 함께 살아남는다.

21세기의 산지기는 오늘도 말없이 시간을 지키고 있다.

사 설

첫 외국인 투자 결실, 이제 전북 경제도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민선 9기 전북도가 첫 외국인 투자 유치의 결실을 맺었다. 일본 아데카그룹의 한국법인인 아데카코리아가 완주산업단지에 613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투자협약을 넘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이미 전북에 자리 잡은 글로벌 기업이 다시 전북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지역의 투자환경과 산업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 만한 성과다.

아데카코리아는 오랜기간 전북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이다. 기업은 투자에 냉정하다.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행정지원이 미흡하면 언제든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다. 그럼에도 아데카코리아가 또다시 수백억 원을 투자한 것은 전북의 산업 기반과 행정의 지원, 기업환경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북의 가능성을 세계 시장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 반가운 것은 투자 분야가 첨단소재 산업이라는 점이다. 반도체와 화학소재 산업은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다. 전북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첨단소재 산업과도 방향이 맞닿아 있다. 이런 기업들이 꾸준히 뿌리내리고 협력기업이 함께 들어올 때 비로소 산업생태계가 완성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번 성과를 이끌어낸 전북도와 완주군의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을 약속한 결과가 첫 결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민선 9기의 출발은 긍정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은 결국 기업이 투자하고 싶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약은 분명 응원받아야 할 성과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투자협약은 출발선일 뿐이다. 실제 공장이 계획대로 증설되고, 지역 인재 채용이 확대되며,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고, 추가 투자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성공한 투자유치라고 말할 수 있다. 한 건의 투자로 만족하는 행정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글로벌 기업과 첨단기업을 전북으로 불러들이는 전략이 이어져야 한다.

전북은 오랫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작은 성공이지만 결코 작은 의미는 아니다. 지역경제는 자신감에서 시작된다. "전북에도 투자할 만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더 큰 기업과 더 많은 자본이 모여든다.

민선 9기의 첫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동시에 이번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전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찾는 투자처로 성장해 나가기를 도민과 함께 응원한다.

▲오늘의 시

별 / 이 상 국

큰 산이 작은 산을 업고
놀빛 속을 걸어
미시령을 넘어간 뒤

별은 얼마나 먼 곳에서 오는지
처음엔 예사랑처럼
희미하게 보이다가

울산바위가
푸른 어둠에 잠기고 나면
너는 수줍은 듯
반짝이기 시작한다
별에서는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별을 닦으면
캄캄한 그리움이 묻어난다
별을 쳐다보면
눈물이 떨어진다

세상의 모든 어두움은
너에게로 가는 길이다

시인 약력 : 1946년 강원도 양양 출생. 1976년 잡지 심상에 시 '겨울추상화'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한국작가회의 강원지회장, 설악신문 대표이사,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원지회장, 한국작가회의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제19회 현대불교문학상, 제24회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 독자투고 |

평화적 집회를 위한 집회참가자의 자세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 속에서 조화롭게 행사되어야 하며, 평화적 집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회참가자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첫째,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된 범위와 조건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를 벗어나는 행위는 집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참가자는 주최 측의 안내와 질서유지요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둘째, 비폭력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물리적 충돌은 집회의 본래 목적을 흐리게 한다.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자제력을 유지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집회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이지만, 동시에 다른 시민의 일상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소음, 교통 방해, 시설 훼손 등은 최소화해야 하며, 공공장소 이용에 있어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넷째, 책임 있는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집회에서 사용되는 구호, 피켓, 발언 등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므로 사실에 기반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혐오를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주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집회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참가자는 개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 등 관계자에게 알리는 등으로 안전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평화적 집회는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성숙한 민주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집회참가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출 때, 집회는 갈등이 아닌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질서와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적 집회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어야 하겠다.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황호인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8월 4일 화요일

대기업과 손잡은 '고창 농산물' 전국 소비자 입맛 사로잡다

수박, 복분자, 고구마, 멜론, 풍천장어 등 대한민국 최고의 식재료를 생산해 온 전북 고창군. 고창군이 최근 국내 대표 식품·외식기업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는 물론,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 올리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편집자 주〉

고창군, ㈜이랜드이츠 등 8개 기업과 협업 대표 농특산물 전국 유통망 확대

고창군은 지난해부터 7월 현재까지 모두 8개 기업(㈜롯데웰푸드, ㈜피자앤컴퍼니, ㈜엠즈씨드, ㈜푸디스트, 클라우드, ㈜보나비, ㈜이랜드이츠, ㈜링티)과의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복분자, 고구마, 멜론, 지주식김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출시와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왔다.

전북 최대규모 고구마 산지
고구마 과자·피자·음료·케이크 출시 '폭발적 호응'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고창 고구마를 활용한 제품 개발이다. ㈜롯데웰푸드는 작년 9월 빈츠, 카스타드, 찰떡파이 등 12종의 협업 제품을 전국에 출시하고 고창 고구마 19톤을 공급받았다.

또한 수도권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약 9천명이 방문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고창 농산물을 널리 알렸다.

㈜피자앤컴퍼니(브랜드명 반올림피자)도 고창 고구마피자를 출시하고 지난해 약 200톤 규모의 고구마를 공급받았다.

또한 고창 모양성제 축제 기간 시식행사에서 고구마피자 500판을 제공했으며, 고창 고구마 홍보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는 등 높은 홍보 효과를 거뒀다.

㈜엠즈씨드(브랜드명 폴바셋)역시 지난 3월 전국 146개 매장에서 고창 고구마라떼, 땅콩라떼, 복분자에이드, 고구마 치즈케이크 등을 출시하며 고창 농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메뉴를 선보였다. 특히 모기업인 매일유업 생산공장이 고창군에 소재하여 지역 상생의 의의를 더했다.

㈜보나비(브랜드명 아티제)는 고창 땅콩빵과 단호박 식빵, 수박주스, 복분자라떼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수도권 60여 매장에 출시하여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선운산 멜론은 뷔페 메인메뉴에
지주식김은 화장품, 복분자는 건강음료 원료로

'애슐리 퀸즈'로 잘 알려진 ㈜이랜드이츠는 올여름 고창선운산 멜론을 활용해 뷔페 시즌메뉴를 선보인다.

이외에도 고구마, 땅콩을 활용한 시즌 메뉴를 전국 매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멜론 약 200톤을 공급하는 등 대규모 소비처 확보에도 성공했다. 클라우드(브랜드명 유리숲)는 고창 지주식김을 활용하여 피부 보습에 좋은 화장품을 개발하고 제품 홍보와 함께 고창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홍보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 땀으로 흘린 수분보충을 위해 고창 복분자가 나섰다. 건강음료 제조회사 ㈜링티가 고창 복분자를 활용한 '링티 복분자맛'을 출시해 전국 판매에 나섰다.

㈜링티에서 홍보영상 제작과 SNS 중심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고창 복분자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다.

랜드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1년 6개월여 만에 고구마 5억2000만원, 복분자 1억4000만원, 멜론 5억원, 수박 5000만원 등 약 15억원 규모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들이 고창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품질 좋은 농산물 때문만은 아니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산지 방문, 생산 농가와의 교류, 공동 홍보까지 함께하는 고창군의 적극적인 협업 방식이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청정 자연환경과 우수한 농산물을 갖춘 고창을 배경으로 쿠팡플레이 OTT 예능 '봉주르빵집' 촬영이 진행됐다. 출연진인 김희애, 차승원 등 마을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고창 복분

에버랜드, 고창수박 활용 굿즈출시
삼성웰스토리, 전국 구내식당서 고창농산물 활용 시즌메뉴

삼성 에버랜드(삼성물산 리조트부문)는 쌍둥이 판다(루이바오, 후이바오)와 고창 수박을 활용한 캐릭터 굿즈를 출시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제23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 홍보 부스 운영,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 고창 수박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삼성웰스토리와(주)는 전국 170여개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고창 복분자와 보리 등을 활용한 신메뉴 5종과 수박을 활용한 이벤트를 실시했다.

고창군은 단순한 농산물 납품을 넘어 기업과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전국 유통망과 브

자, 청보리, 계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와 디저트를 직접 개발하고 선보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고창의 농산물과 아름다운 농촌 풍경이 자연스럽게 전국 시청자들에게 소개되면서, 고창 농산물은 '좋은 원료'를 넘어 소비자가 신뢰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대기업 유명 카페와 외식업체에서 고창수박과 고구마, 멜론, 복분자 등을 활용한 메뉴를 쉽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고창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고창 농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